

鐵人은 안전도 강철같이 한다

(주)태광벤딩

취재 · 사진 | 연슬기 기자(skyway@safety.or.kr)



김충일 대표이사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안전이 아니라 본인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본인만 피해를 입는 것은 그 가족과 회사입니다.

이런 커장을 제조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아픈 모습에 눈은 생을 눈물로 지새우게 될 것입니다. 또 숙련된 근로자를 잃은 회사는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 육성한 기술을 한순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그 근로자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생겨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신규 채용을 육성하는 비용도 들게 됩니다. 이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로자들이, 형사 명심하시고, 늘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가장 좋은 회사 그리고 나라에 보탬이 되는 길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에 소재한 (주)태광벤딩은 철판을 벤딩(구부리는 작업) 또는 평판작업을 하여 배관용 강관 등의 산업기계 및 설비를 만들어 내는 회사로, 2002년 설립됐다.

이곳은 배관용 강관, 특수분야 강관, 프랜지 등의 특수 조인트, 고압설비·와이어드럼 등의 각종 플랜트 건설에 사용되는 산업설비 부품 등 철을 사용하는 제품은 모든 성형, 가공한다. 이런 방대한 생산능력을 반영하듯 회사의 슬로건도 '철에 관한 모든 것'이다.

아울러 이곳은 기술력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청계천, 월드컵주경기장, 인천대교, 인천공항 등 유명 현장엔 이곳의 제품이 대거 들어갔다.

이곳 임직원들은 이같은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의 원동력으로 '안전'을 향한 열정을 쏟는다. 무결점 무재해 현장은 아니지만 무재해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한 것이 지금의 성과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안전으로 중부권 최고의 벤딩기업으로 성장한 이곳 현장을 찾아가, 그들만의 특별한 안전활동을 살펴봤다.

현장에 최적화한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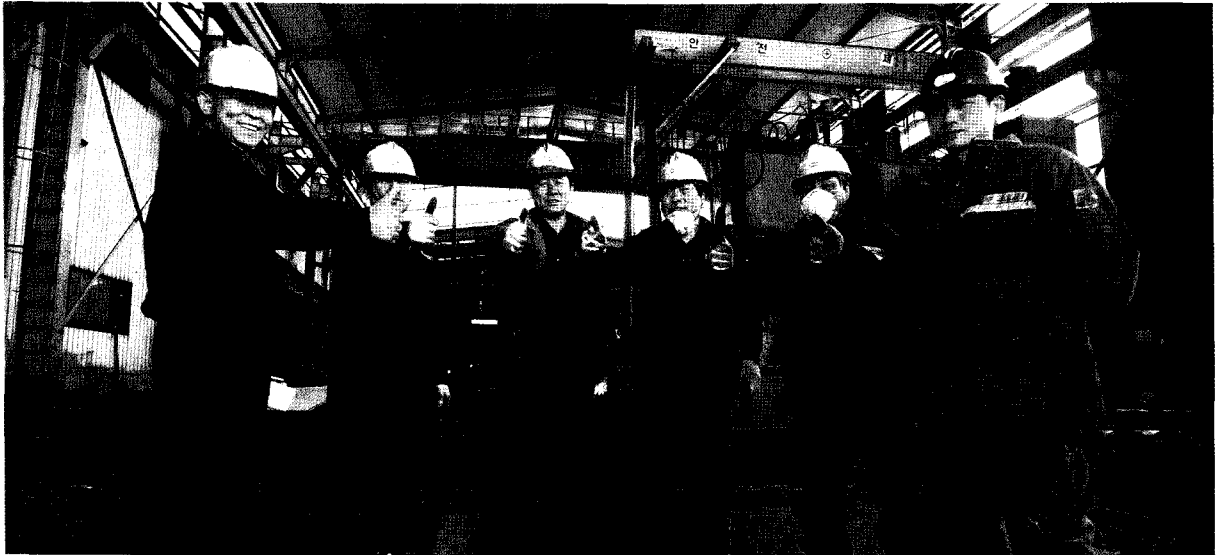
이곳은 배관용 강관, 특수분야 강관, 고압설비 및 공조설비 강관, 탱크롤러, 와이어드럼 등 철에 관한 모든 것을 만드는 기업답게 갖추고 있는 설비도 다양하다. 벤딩롤러, 유압프레스, 용접기, 오버헤드 크레인 등 수십여종의 중장비 설비를 갖고 있는 것.

생산 장비 대부분이 중장비 설비인데다 생산 제품들도 철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중량물이다 보니 이곳에선 작은 안전사고도 중대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다.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은 제품의 상·하차 작업과 이동작업이다. 이외 소음이 나 달궈진 쇠로 인한 화재의 위험도 상존한다.

이같은 위험에 대비해 이곳은 안전모, 귀마개 등의 안전장구 지급을 완비한 것은 물론 설비에 적합한 안전장치도 대부분 설치해놓았다. 또 작업은 항상 계획서와 관리감독자에 의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교육을 위한 별도의 강의실도 마련해 각 팀별로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경영진이 나설 때 '성공'

우수한 안전활동을 하는 사업장들의 공통된 특징은 경영진들이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역



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고 경영자인 김충일 대표이사는 '안전제일주의'를 경영방침 전면에 내세우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 교육에서부터 직원들의 건강관리까지 앞장서 챙긴다.

또 철을 사용하는 벤딩작업은 중량물 취급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점을 항상 직원들에게 주시시키며, 모든 작업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철저히 당부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가 이렇듯 안전활동을 직접 최일선에서 지휘하는 것은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전활동이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김 대표이사의 높은 관심 속에 이곳은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라면 늘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다.

무재해는 곧 회사의 경영이득

이곳은 직원들의 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중량물 취급이 많은 공정 특성상 체력이 저하되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상·하역 작업 외에는 한 곳에 서서 또는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아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도 있다.

그래서 이곳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한 금액인 약 6,000만원을 투자해 체력단련실을 사내에 만들었다. 아령, 덤벨 등 무게조각 간도 조성해 직원들이 틈틈이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체력단련실의 경우는 직원에게 1인당 월급 2,000원씩을 지급해 적극적으로 사용을 장려하고 있을 정도다.

이밖에 이곳은 최근 근로자들의 안전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안전활동에 참여한 직원에게 경우 회사차원에서 전 직원에게 특별격려금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고가 없어야 하는 것 또한 안전활동의 결과'를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곳 경영진의 방침에 힘입어 추진됐다.

이처럼 안전을 향한 경영진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이곳의 성장은 앞으로도 탄탄

